김종국, SBS 연예대상 주인공…"예능이 삶의 전부"

데뷔 25년 만에 첫 연예대상 수상

최우수 김희철·이상민·하하·장윤정

김종국이 '2020 SBS 연예대상'에서 데뷔 후 첫 연예대상을 품에 안았다.

19일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센터에서 열린 '2020 S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의 영예는 김종국에게 돌아갔다.

김종국은 올해 10주년을 맞은 '런닝맨'의 원년 멤버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또 최근에는 '미운 우리 새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그는 "가수로 대상을 받아봤지만, 그때는 덤덤했다. 이후 그때 왜 상을 받았던 걸 즐기지 못했을까 생각했다"며 "이런 감정이 올 줄 몰랐다. 그만큼 제게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울컥했다.

이어 "숫기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예능 'X맨'을 하면서 재석이형, 호동이형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다. 음악도 있지만, 지금은 예능이 삶의 전부가 된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많이 힘든데, 여러분 힘내시고 저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탁재훈을 언급하며 웃음을 안겼다. 김종국은 "스태프들이 상을 받으면 재훈이형을 언급하라고 했다. 뭘 언급할까 생각했는데, 재훈이형이 대상을 받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저는 대상을 받고,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들도 재훈이형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시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프로듀서상'은 대상 후보에 올랐던 '집사부일체, '맛남의 광장'의 양세형에게 돌아갔다. 양세형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 웃기는 게 너무 즐겁다"며 "요즘 코로나19로 마스크 때문에 표정을 못보는데 그 마스크를 뚫고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재미있게 해드리는 게 저희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우수상은 '맛남의 광장'·'미운 우리 새끼' 김희철, '미운 우리 새끼' 이상민, '런닝맨' 하하, '트롯신이 떴다' 장윤정이 받았다. 최우수상 프로그램은 '미운 우리 새끼'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불타는 청춘' 김광규, '백종원의 골목식당' 정인선, '집사부일체' 김동현, '텔레그나'·'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장도연에게 돌아갔다. 우수 프로그램은 '맛남의 광장', '트롯신이 떴다'가 선정됐다.

지난 2018년 대상과 2019년 프로듀서상을 국에게 돌아갔다.

수상한 이승기는 핫스타상(OTT부문)을 받았다. 그는 '집사부일체'에서 부른 '금지된 사랑'이 유튜브에서 조회 수 800만뷰를 넘기는 등 화제가 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승기는 "사실 '금지된 사랑'을 안 부르겠다고 했다. 제가 회식 때 가끔 불렀던, 취기로 부르던 노래"라며 "제작진이 꼭 한번 불러 달라고 해서 제작진의 선택으로 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예대상은 SBS 30주년을 맞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연결'을 주제로 꾸며졌다. 특히 SBS와 함께 했던 레전드 예능인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SBS와 역사를 함께 한 레전드 특별상에는 이홍렬, 최화정, 임성훈, 이경실, 이성미, 이봉원, 최양락이 선정됐다.

1996년 '이홍렬쇼'로 함께한 이홍렬은 "이 자리에 서니까 선배들 생각이 많이 난다. 선배들이 많이 그리운 오늘"이라고 말했다.

20년 넘게 SBS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최화정과 임성훈도 입담을 뽐냈다. '최화정의 파워타임'의 최화정은 "라디오를 24년을 했다. 제가 SBS 파워FM 개국 DJ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다. 현재진행형 DJ라는 점도 행복하다"고 밝혔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의 임성훈은 "1998년에 진행 제의를 받았을 때 사실 좀 망설였다"며 "열심히 한 덕분에 100회를 넘어, 1100회를 지났고 햇수로 23년이 됐다. 우리 방송 자체가 제목처럼 '세상에 이런일이'가 됐다"고 미소 지었다.

이경실·이성미는 후배 개그맨들에 대한 걱정을 전했다. 이경실은 "개그맨들이 서야 할 곳이 없는 게 가슴 아프다. SBS에서 먼저 개그맨들에게 좋은 웃음의 장을 펼쳐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고, 이성미도 "후배들 일자리가 없는 게 가장 가슴이 아프다. SBS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베스트 커플상은 '미운 우리 새끼'의 임원희와 정석용, '함께 N 팀워크상'은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의 박성광-이솔이, 송창의-오지영, 전진-류이서, 오지호-은보아 부부가 받았다. 신인상은 '집사부일체'의 차은우, '제시의 쇼!터뷰'의 제시, '미운 우리 새끼'의 오민석에게 돌아갔다.

〈2020 SBS 연예대상 수상자(작)〉

▲대상=김종국(런닝맨)
▲프로듀서상=양세형(집사부일체·맛남의 광장)
▲최우수상=하하(런닝맨), 장윤정(트롯신이 떴다), 김희철(맛남의 광장·미운우리새끼), 이상민(미운우리새끼)
▲최우수 프로그램상=미운우리새끼
▲우수상=김동현(집사부일체), 장도연(텔레그나·꼬꼬무), 김광규(불타는청춘), 정인선(백종원의 골목식당)
▲우수 프로그램상=맛남의광장·트롯신이 떴다
▲핫스타상(OTT)=이승기
▲핫스타상(TV)=박나래(박장데소), 장도연(박장데소)
▲골든콘텐츠상=정글의법칙·런닝맨
▲레전드 특별상=이홍렬, 임성훈, 최화정, 이봉원, 최양락, 이경실, 이성미
▲베스트 커플상=임원희·정석용(미운우리새끼)
▲베스트 엔터테이너상=신성록(집사부일체), 박선영(불타는청춘)
▲방송작가상=육소영 작가(미운우리새끼), 황보경 작가(백종원의골목식당), 이해연 작가(꼬꼬무)
▲라디오 DJ상=김창완(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라디오 신인상=허지웅(허지웅쇼)
▲함께N 팀워크상=박성광-이솔이, 송창의-오지영, 전진-류이서, 오지호-은보아(동상이몽2)
▲공익 예능상=김성주(백종원의 골목식당)
▲명예사원상=서장훈(핸섬타이거즈·동상이몽2·미운우리새끼)
▲신스틸러상=탁재훈(미운우리새끼)
▲신인상=차은우(집사부일체), 오민석(미운우리새끼), 제시(제시의 쇼!터뷰)

지민,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1위…3위 빼고 전부 BTS

3위는 엑소 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이 보이그룹 중 개인 브랜드평판이 가장 높은 인물로 꼽혔다. 특히 상위 5위까지 중 3위를 빼고 모두 BTS 멤버들로 꼽혀 눈길을 끌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19일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보이그룹 개인 653명의 브랜드 빅데이터 1억2198만3511개를 추출해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 지수 등 브랜드 평판지수를 도출한 것이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이다.

1위를 차지한 BTS 지민 브랜드는 참여지수 89만4846, 미디어지수 258만3679, 소통지수 176만5102, 커뮤니티지수 193만6786 등으로 브랜드 평판지수가 718만413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브랜드 평판 지수(519만2015)와 비교하면 38.30% 상승했다.

2위는 BTS 제이홉 브랜드로 브랜드 평판지수 637만2532, 3위는 엑소 카이 브랜드로 570만4162, 4위는 BTS 뷔 브랜드로 383만1305, 5위는 BTS 정국 브랜드로 352만111 등이었다.

구창환 한국기업평판연구소장은 "1위를 기록한 BTS 지민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감사하다, 기록하다, 섹시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MAMA, 빌보드, 장학금' 등이 높게 분석됐다. 긍·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긍정 비율 82.87%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6위부터 상위 30위까지는 ▲BTS RM ▲BTS 진 ▲BTS 슈가 ▲아스트로 차은우 ▲슈퍼주니어 희철 ▲인피니트 김성규 ▲NCT 정우 ▲엑소 백현 ▲NCT 재현 ▲샤이니 태민 ▲NCT 마크 ▲NCT 해찬 ▲슈퍼주니어 이특 ▲빅톤 최병찬 ▲더보이즈 현재 ▲비투비 서은광 ▲NCT 도영 ▲몬스타엑스 셔누 ▲NCT 제노 ▲NCT 지성 ▲NCT 텐 ▲NCT 태용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 ▲동방신기 유노윤호 순이었다.

쇼미더머니9 최종 우승자 '릴보이'

"음악에 확신 갖게 돼"

엠넷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9'이 자이언티·기리보이팀의 래퍼 릴보이가 최종 우승하면서 3개월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지난 18일 방영된 '쇼미더머니9'에서는 스윙스, 래원, 머쉬베놈, 릴보이의 결승 대결이 펼쳐졌다.

자이언티는 릴보이의 1라운드 경연을 위해 프로듀서 겸 래퍼 그레이를 섭외했다. 여기에 로꼬, 박재범까지 지원 사격에 나선 곡 '온 에어'으로 릴보이는 생방송 문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2라운드 경연 무대에서는 염따와 기리보이, 자이언티가 피처링에 참여해 매력을 더했다. 네 사람은 감성적 가사가 돋보이는 곡 '크레딧'으로 따뜻함을 전했다.

1라운드 최종결과 1위는 릴보이, 2위 머쉬베놈 3위 래원, 4위 스윙스였다. 2라운드 경연까지 더한 최종 경연 결과 릴보이는 머쉬베놈보다 1000만원 이상의 배틀머니 차이를 기록하며 최종 우승했다.

릴보이는 "자이언티 기리보이 프로듀서 너무 고생 많았고 사실 이 쇼가 진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걸 다 보게 됐는데, 그 노력에 너무 감사드린다"며 "저에게 음악에 확신을 준 프로그램이자 쇼였던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프로듀서 자이언티는 "일단 함께해준 기리보이에 너무 고맙다.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견뎌준 릴보이 너무 고맙다"고 했고 기리보이는 "쇼미더머니 하면서 음악을 제대로 만들어보자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더라. 또 제 친구, 10년 전에 친했던 릴보이와 함께 우승했다는 건 너무 뿌듯한 것 같다"고 전했다.

준우승을 차지한 머쉬베놈은 "저는 홀몸으로 올라와서 여기까지 온 것도 그루비룸, 저스디스 프로듀서 힘 덕분인 것 같다. 무명세가 길다 보니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음악 한다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었는데 이제 하늘에서 재밌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3위 래원은 "매일 혼자서 방구석에서 노래 만들다가 쇼미더머니 나와서 북적북적한 데 껴있으니까 사는 것 같고 매 순간이 행복했다. 행복한 기억이 99% 될 것 같다. 프로듀서 코드 쿤스트, 팔로알토 프로듀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4위를 차지한 스윙스는 "제가 헤이터(hater)들 때문에 여기 나왔다고 했지만, 팬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다. 경쟁도, 싸움도, 증명도 충분히 했다. 이제 조금 더 행복해진 음악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없는 것 같다. 이 실패가 너무 감사하고, 모든 실패는 가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새해전야'도 코로나19로 개봉 연기…연말 신작 가뭄

영화 '새해전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결국 개봉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배급사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는 18일 "오는 30일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 '새해전야'가 코로나19 추가 확산과 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봉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새해전야'의 개봉을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며 "추후 개봉 일정 및 언론·배급 시사회 일정은 다시 안내하겠다. 하루빨리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새해전야'의 개봉 일정이 뒤로 미뤄지면서, 오는 22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언론·배급 시사회와 배우들의 화상 인터뷰도 취소됐다.

'새해전야'는 인생 비수기를 끝내고 새해엔 더 행복해지고 싶은 네 커플의 두려움과 설렘 가득한 일주일을 그린 영화다. '결혼전야',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등의 홍지영 감독 신작이며, 배우 김강우, 유인나, 유연석, 이연희, 이동휘, 천두링, 염혜란, 최수영, 유태오가 출연한다.

'새해전야'까지 개봉 일정을 뒤로 미루면서 본래 크리스마스와 연말 특수를 누리던 극장가는 신작 가뭄을 겪게 됐다. 애초 이달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었던 '서복'과 '인생은 아름다워' 등도 앞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개봉을 연기했다.

외국 영화로는 오는 23일 개봉하는 할리우드 대작 '원더 우먼 1984'가 극장가 숨통을 틔울지 주목받는다. 연말 기대작이었던 픽사 애니메이션 '소울'도 개봉을 내년으로 연기했다.